

강진 전라병영성·금곡사 벚꽃축제 7만명 '복직'

관광 강진 명성 재확인 계기 체험프로 인기·먹깨비 실적 ↑

강진군은 지난달 29~31일 동시에 열린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제7회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축제가 7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모으며 '관광 강진'의 명성을 재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산뜻한 봄날, 조선으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라병영성축제에는 4만명 이상이 찾았다. 이들은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 사용하기 등 19종 체험에 1만명 이상 참여 '현대판 조선시대'를 만끽했다.

성을 지키는 수문장 의상을 입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어린이 수문군', 병영의 대표 먹거리인 돼지불고기와 토하젓을 활용한 '병영 주먹밥 나눔', 달고나와 전투식량을 만들어 먹는 '병영 간식 체험',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병영성 성곽을 걷는 '전라병영성 소원 성취 성곽 밟기', 조선시대 점집과 성곽 쌓기 등 병영을 테마로 체험거리가 인기를 끌었다.



강진군이 지난달 29~31일 동시에 열린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제7회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축제가 7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모으며 '관광 강진'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뉴스**

병영 돼지불고기와 병영의 술, 설성막걸리를 판매한 '병영주막'도 운영해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병영 돼지불고기는 조선시대 병영성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음식이었던 불 향 가득한 매콤한 불고기이며, 설성막걸리 역시 병영에서 제조하는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로컬 막걸리로 담백하며 청량감이 일품이다.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열린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는 덜 만개한 벚꽃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이 북적거려 모처럼 '강진의 봄'을 만끽했다. 전라병영성축제와 동시에 열리며 차량으로 5분이면 벚꽃길에 들어올 수 있어 연계 축제로서 효과를 누렸다.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전년보다 축제장과 축제가 열린 병영면과 군동면 일원의 음식점과 카페, 넓게는 강진관내 상가까지 들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나 축제와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입증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실적도 늘었다. 축제 전 주 금, 토, 일요일 사흘간은 주문 1047건에 매출액은 2597만 6000원이었으나 축제 기간에는 주문수 1527건, 3891만3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강진원 강진군은 "올해 치러질 축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농번기철 오전 8시 조기출근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안군은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오전 8시에 조기출근을 하고, 6월 한달 동안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근무를 한다.

이른 아침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 전날 오후 4~6시 까지 출고하는 사전출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농기계를 직접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운반서비스와 함께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말까지 임대료 50% 추가 감면제를 시행 중이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취약계층 아동 맞춤 관리 목포시 드림스타트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아동전담 통합사례관리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초기 상담 및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사례관리대상아동(310여명)을 선정하고, 가족 내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오는 6월까지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해 학령기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비판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4월 중에 262명의 6세이상 아동과 212명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기관과 협업체 우울, ADHD, 분노조절장애 등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양육자에게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 임자 해변승마대회' 12~13일 12km 대광해변

신안군은 오는 12~13일 임자면 대광해변에서 '제3회 신안 임자 해변승마대회'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폭 200m, 길이 12km에 달하는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장애물과 지구력 경주, 방문객들에 승마체험 기회 등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승마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대회는 신안군의 대표 축제인 톨립축제 기간에 맞춰 개최돼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아동 310여명을 선정하고 가족 내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향상을 목표로 맞춤 통합 서비스를 펼친다. **목포시 제공**

진도군 고군농공단지, 복지·문화·편의시설로 경쟁력 강화

진도군이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복지·문화·편의시설 집적화를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

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패키지 형태로 통합 공모해 복지·문화·편의시설 집적화를 추진한다.

군은 확보한 국비 60억원 포함 총 86억 원을 투입, 고군농공단지 내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청년문화센터 등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고군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문화·편의 시설로 증축하고 신규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농공단지 내 기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문화센터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취·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도로·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거리 조성, 고군농공단지 산업·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도, 저소득층 장애인·한부모가정 '행복여행' 지원 확대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을 대상으로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전남 여행을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6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은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당일 여행 상품 기준 1인당 1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의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동행인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신안, 완도, 진도 등 도서 지역은 양질의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해 1박2일 숙박 여행 상품도 운영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도와 시군이 준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간재 기자**



완도산 다시마로 만든 화장품 미 아카데미 시상식 협찬 눈길

완도산 다시마로 만든 크림 에센스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협찬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는 1일 완도군 소재 화장품 제조기업인 어업회사법인 ㈜이노플릭스가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협찬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협찬된 이노플릭스 '마리나비 트랜스포메이션 크림 에센스'는 완도산 해조류 다시마를 활용해 개발된 제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남도, 완도군,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등이 지원한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의 주연인 민나 웬은 해당 제품을 선택해 사용했다.

이노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 마리나비 데이지 릴리프 카밍 토너, 리페어 앰플 등 제품 4종을 판매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